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의 보도방식과 뉴스 프레임 연구*

강승훈**

이 연구에서는 중앙지와 지역일간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간에 현실 재구성, 뉴스보도 가치 등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주력했다. 보도방식은 고전적인 형식에 최근 경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찬·반의 명확한 태도에서 벗어난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으며 반면 경인일보는 감시자의 입장에서 서 있었다. 즉 전국을 취재 권역으로 한 중앙지는 지역 이슈에 대해 관망적인 자세를 보였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지역일간지는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다. 이런 뉴스구성 태도는 실제 지면으로 이어지는 기준인 뉴스가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영향성에, 경인일보는 문화적 유사성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는 매체 간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경제적 중요성과 인간적 흥미성은 높았고 선정성 및 규범적 일탈성은 낮았다.

주제어: 인천경제자유구역, 보도방식, 뉴스가치, 뉴스프레임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첫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다. 2003년 8월 6일 정부는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 등 3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전국 6곳(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가운데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외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 파급효과가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슈라는 점에서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간, 양 신문의 보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소재다. 이 연구는 전국적 현안이면서 동시에 지역현안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보도하는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의 뉴스 관행 차이를 언론이 사건을 구성하는 틀, 이른바 프레임을 통해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국내 프레임 연구들은 중앙지 또는 지상파방송 간 매체 사이에 또는 매체 내 프레임 비교가 대부분이었다. 또 지역에만 국한된 현안을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매체별로 비교하기도 했다.

나미수(2004)는 2003년 전라북도 부안군 핵 폐기장 유치를 다룬 KBS와 MBC 저녁 종합뉴스에서 전국 및 전북지역 뉴스 간 프레임을 구분했다. 사회적 갈등 이슈이자 에너지 정부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뉴스에 비해 지역뉴스의 보도량이 월등히 많아 국책사업이지만 지역적 사안으로 다루는 경향이 다분했다. 원만해와 채백(2007)은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그리고 부산일보를 비교한 결과, 중앙지가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찬·반의 주장을 일관되게 보인 반면 지역일간지 부산일보는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기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고

* 본 연구는 강승훈의 2009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함.

**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shkang9@korea.ac.kr)

했다. 각 신문의 프레임 차이는 신문사에 내재된 정치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보도 범위에 따라 동일하거나 다른 프레임이 구축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중앙지와 지역일간지는 언론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속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보도의 방향성을 지닐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보도의 방향성은 매스미디어, 즉 언론이 그 본래 역할을 갖고 꾸준히 사실 보도(fact report)와 사회를 견제하는 기능과 연결된다. 매스미디어가 지역 사회에서 파수견적 행동을 취하는 경비견(guard dog)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Donohue, Tichenor & Olien, 1995). 중앙지 또는 지역일간지 간,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간의 신문은 뉴스생산에서 각기 다른 기능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자들은 정부 관료들과 같은 권력 엘리트들에 의존하여 언론이 뉴스를 통해 정부의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시갈(Sigal, 1973)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언론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허용하는 일정한 헤게모니적 한계 내에서 보도한다는 것이다(Gitlin, 1980; Tuchman, 1978).

이 연구에서 중앙정부 행정과 직접 관련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라는 이슈를 갖고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의 주요한 보도 태도를 직접 비교하고자 한다. 다양한 뉴스보도가 경제자유구역 같은 국가적 및 지역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어떤 틀에서, 어떤 내용에 비중을 두고 다루었느냐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McCombs & Shaw, 1972), 인천경제자유구역처럼 해당 지역을 포함하면서 전국을 범위로 전개되고 있는 사안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워 미디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Soroka, 2002). 따라서 중앙지와 인천 지역일간지가 어떠한 뉴스 프레임과 뉴스가치를 가지고서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작업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뉴스 프레임과 함께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역언론의 특수성에 근거해 보도기준이 되는 뉴스가치(news value)에도 초점을 맞췄다. 중앙지와 지역일간지는 같은 이슈를 두고서도 뉴스 비중을 판단하는 근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방식이고 뉴스가치는 기사의 생산 과정에서 독자에 전달되기 위한 평가요인이므로 동일한 선상에서 유의미한 논의라고 하겠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지만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이들의 보도방식에서 패턴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므로 뉴스 프레임과 뉴스가치가 이번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본 논문은 뉴스 프레임을 ‘뉴스기사가 현실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규정·해석하는 방식’이란 경제적 영향 프레임을 도입해 차별화시켰다. 고프만(Goffman, 1974)이 수용자가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란 측면에서 접근했던 고전적 방식과는 다르다. 이는 일차적 해석에 그칠 수 있는 기사 형식의 내용분석 연장선에서 학술적 이론을 접목시켜 나름의 콘셉트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전국과 지역을 포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슈에 대해 중앙지와 지역일간지가 어떠한 프레임과 어떤 뉴스가치를 동원하는지 살펴보는 게 연구의 목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한 중앙지와 지역일간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언론이 자신의 입장(position)에 따라, 달리 말하면 이데올로기 또는 본사 소재지, 주요 취재권역, 지역별 발행 및 판매 집중도 등 지리적 위치를 달리할 때 이슈 프레임과 이슈 가치가 다르게 선택된다는 것을 알아보겠다.

2.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언론의 보도관행

비중이 큰 뉴스의 선택 기준은 근접성으로 대표된다. 미디어는 근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슈로 보도하는 경향이 다분하다(장호순, 2001). 또 신문편집장들은 단순히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보다는 지역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반영하는 경향이 더 많기도 하다(Morton & Warren, 1992). 더불어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 편집국의 동기, 시각, 이해관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야기 전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언론의 보도관행이 프레임 형성에서 중요하다(Entman, 1993).

지역사회에서 언론은 정보, 구독료, 광고료 등의 뉴스 제작에 필요한 각종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제도화된 뉴스원(취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자체와 같은 지배 권력인 공식적 뉴스원이 언론사 활동에 필요한 주요 자원을 통제한다는 기존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권력구조의 핵심인 지자체를 포함한 각 국가기구는 지역 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원, 광고주, 신문의 소비자로서 역할을 한다(윤영철·홍성구, 1996). 즉, 지역언론은 지역 구성원이란 특수성으로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정호(1998)는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지역여론을 형성하여 지역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도노휴 외(Doonohue, et al., 1995)는 매스미디어의 기능에 경비견의 개념을 도입하며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지역사회를 위한 감시견(watch dog)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안정적 언론활동을 돕는 권력집단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부정하고 그 권력집단 또는 체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지역언론이 충분한 권력을 갖고 미디어의 안정적 언론활동을 창출하고 통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위해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미디어는 지역사회체계와 항상 연관성을 맺고 있어 감시견적 행동은 할 수 없다. 미디어가 이익을 추구하는 한 기업으로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유정호, 1998).

보편적으로 언론의 제작과정(뉴스가치, 판단 기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외적통제요인과 조직의 구조적 상황 및 성격, 내부 게이트키퍼, 개인 가치관 등 내적통제요인이 영향을 준다. 뉴스 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언론사 조직 내적 차원의 논의가 두드러진다. 지역언론은 해당 지역을 근간으로 하고 구성원들 또한 특정한 이 사회의 일원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언론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이슈(현안)에 객관적인 보도를 수행할지 확인이 필요하다. 즉, 지역일간지가 언론의 기능인 감시견으로 충실한지의 점검이 이번 연구에서 목적이라 하겠다. 지역일간지는 회사 규모나 소유구조 등 내부 구성에 있어 중앙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신문사의 내·외적 취재시스템에서도 확연하게 다르다. 지역신문의 규모에 따라 뉴스 게이트키퍼를 살펴본 남효윤(2006)에 따르면, '규모가 큰 신문'의 기자들은 신문사 자율규제에 의한 통제와 개인적 차원의 통제, 데스크에 의한 통제 순으로 게이트키퍼가 일어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신문' 기자들은 경제적 통제와 소유주·경영진에 의한 통제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이때 규모란 자본금, 전체 종사자수, 발행부수, 1일 발행 지면수 등으로 구분한다.

2) 개발사업의 뉴스 프레임 장치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사업은 국민생활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임양준, 2010). 인천의 현안이면서 동시에 정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짙어 현실과 밀접성이 크다. 프레임(frame)은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때 현실은 객관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 프레임 개념이 등장한 1970년대 중반, 고프만(Goffman, 1974)은 수용자가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로 풀이했다. 즉 프레임은 기사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조하는 것이다(Entman, 1991). 매스미디어는 뉴스를 통해 사회적 현실을 구성(framing)하며 이런 현상이 ‘경제적 영향 프레임(economic consequences frame)’으로 특성화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Valkenburg, Semetko & Vreese, 1999). 이를 고려한 미디어는 경제적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영향이나 효과를 강조해서 기사를 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뉴스 프레임을 ‘뉴스기사가 현실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규정·해석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해 뉴스 프레임은 해당 이슈를 보도하는 과정에 실시되며 이는 신문사가 지닌 정치적 성향, 내부 게이트키퍼 및 회사의 구조 등 내·외부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신문 제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2002년부터 약 4년간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이란 환경갈등 문제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그리고 부산일보의 뉴스 프레임을 살펴본 원만해와 채백(2007)은 중앙지와 지역일간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시간의 경과가 프레임을 사용함에 있어 어떤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에 주목했다. 이슈 중심의 연구라는 특성으로 귀납적인 방식을 택해 정책의 비효율성/무능 프레임, 경제적 효율성 프레임, 합리적 절차 중시 프레임, 환경영향평가 재시행 프레임, 원론적 환경보전 프레임, 생명 중시의 도덕성 프레임, 일화적 프레임의 7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정책의 비효율성/무능 프레임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했고, 한겨레는 생명 중시의 도덕성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다. 반면 부산일보는 환경영향평가 재시행, 합리적 절차 중시 등 다양한 프레임을 선보이며 중립적 의견을 제시했다.

엔트만(Entman, 1993)은 프레임링을 ‘파편화된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며 텍스트가 이슈 규정(problem definition), 원인해석(causal interpret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처리방법 제시(treatment recommendation) 등 4가지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현실을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어떤 프레임으로 유형화되는지 명확히 이론화될 만한 기준이 없다고 했다. 이 연구는 앞선 원만해와 채백(2007)의 검증과 마찬가지로 귀납적인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귀납적 방법은 정형화된 프레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관점에서 추출 가능한 프레임을 모두 드러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뉴스의 내용적 프레임을 지역경제 활성화 프레임, 지역낙후성 극복 프레임, 수도권 균형발전 프레임, 정책적 개발유도 프레임, 부동산 투기조장 프레임, 근본적 이윤보장 프레임, 난개발 심각 프레임, 규제정책 필요 프레임으로 각각 세분화시켰다. 여기에 기사 논조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보도시각을 긍정, 부정으로 분류했다. 긍정 보도는 개인, 집단 등이 낙관적 시각으로 현실을 해석 또는 전망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 보도는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예측하는 것이다. 더불어 형식적 프레임은 아이언거(1991)의 분류 방식을 활용해 일화중심, 주제중심으로 나눴다.

3) 뉴스가치 논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특정지역의 이슈를 대상으로 뉴스가치를 평가한 기존 연구는 수용자나 매체 모두가 지리적으로 근접할 때 이슈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 공통적이다(Dominick, 1997; 박관희, 2002). 이는 뉴스가 지리적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도 보여진다. 또 기자 스스로는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흥미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뉴스가치의 개념은 크게 세 분류로 정립되고 있다. 첫째, 기존 기사선택(selection) 기준을 일탈성(deviance)과 사회적 영향성(social significance)의 양축으로 판단한 전통적인 보도가치다(Shoemaker, 1996; 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1; Shoemaker & Eichholz, 2000). 둘째, 제대로 보도했는지의 평가(evaluation) 가치이다(Merill, 1993). 셋째, 에트마와 글래서(Ettema & Glasser, 1987/1998, Glasser & Ettema, 1989)가 주장한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 가치가 있다.

슈메이커와 그의 동료들은 뉴스기사가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관찰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 일탈성에 주목했으며 예외성, 선정성, 흥미성, 갈등성, 시의성, 근접성 등으로 나누었다. 또 사회적 영향성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적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슈메이커는 일탈성과 사회적 영향성이 모두 큰 사건은 중요하게 보도되고, 둘 중에 하나만 큰 사건은 중간 크기로 보도된다고 설명했다. 일탈성과 사회적 영향성이 모두 적은 사건은 중요하지 않게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되지 않는데, 그 기준은 시간성과 근접성 관여 여부라고 했다. 메릴(Merill, 1993)은 소위 ‘TUFF 원칙’으로 언론보도의 전문성과 기자들이 지녀야 할 언론윤리를 규정했다. 메릴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추측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진실성(truthfulness)과 불편부당성(unbiasedness), 공정성(fairness), 완전성(fullness) 등 네 가치를 취재보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 에트마와 글래서는 기존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탐사성 저널리즘을 제기했다. 뉴스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그 사건에 내재하거나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사보도 가치로 공표성(publicity), 설명성(accountability), 통합성(solidarity)을 들었다. 공표성은 심층취재를 통해 숨겨진 사실을 얼마만큼이나 밝혀낼 수 있는지의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앞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진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뉴스가치를 분류하는데 집중했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분야로 특징되는 경제기사를 보도한 중앙지 조선일보와 지역일간지 경인일보의 보도 경향을 내용분석으로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으로 기사형식과 기사쓰기 방식, 뉴스분류를 포함하는 보도방식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지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뉴스 보도 전·후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별 취재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연구문제 1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과 관련한 기사에서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의 보도방식 및 취재원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조선일보와 경인일보는 본사 소재지를 포함한 주요 발행권역 등 중앙과 지역으로 대변되는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 각각의 신문사는 뉴스 제작과정에 협력적 체계 구축보다 서로 견제가 불가피한 구도로 위치한다. 다른 환경과 견제의 관점에서 조선일보와 경인일보는 차별화되므로 두 신문의 경제현실 프레이밍 과정 규명이 필요하다. 언론사는 같은 정보를 놓고서도 정보를 재해석하는 관점이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지리·환경적인 면에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제를 통해 조선일보와 경인일보, 즉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간 뉴스 프레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과 관련한 기사에서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의 뉴스 프레임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뉴스가치는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선택하여 기사로 만들어서 보도하는 절차이다. 뉴스가치를 확인 하면 각기 매체가 경제 분야라는 주제 특성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비롯해 문화와 정치적인 관계성 등 어떤 내용에 비중을 두고 뉴스로 다루는가의 그 척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과 관련한 기사에서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의 뉴스가치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와 경인일보다. 이 둘은 보수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양식의 유사성을 보였고 전국과 해당 지역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일간 종합신문이다. 분석 기간은 2003년 8월 6일 당시 재정경제부(현 지식경제부)가 인천의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한 날로부터 향후 5년이 지난 2008년 8월 5일까지로 정했다. 2020년까지 총 3단계로 구분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2008년 말을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활성화의 1단계 사업시기로 구분했다. 분석 매체의 신문 기사는 각 신문사닷컴 조선닷컴(www.chosun.com), 경인닷컴(www.kyeongin.com)에서 자체 검색을 진행했다. 이들 시스템에서 검색단어는 모두 ‘경제자유구역 &(와) 부동산’으로 입력했고 검색 영역에 제목, 본문, 주제를 모두 포함시켰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신도시건설로 요약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개발 사업을 압축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추출된 전체 표본은 조선일보 120건, 경인일보 360건 등 모두 480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황해, 새만금, 군산,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타지역 경제자유구역 내용을 담고 있거나 양쪽 신문사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한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도 배제됐다. 1차적 선별에서 조선일보는 78건, 경인일보는 321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연구자는 양쪽 표본의 크기 차이를 고려해 경인일보에 대해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method)을 추가했다. 매체 간 표본수를 임의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체계적 표집은 어떤 표집 프레임에서 매 n번째 단위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출발점을 무작위로 정할 경우 매 n번째 단위를 선택함으로써 확률 표본을 구성할 수 있다(Riffe, Lacy & Fico, 1998). 이런 형태로 경인일보 기사 중 1과 10사이의 숫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택한 8번을 출발점으로 3을 더하여 표집간격으로 정했다. 따라서 8, 11, 14, 17번째 순으로 105개의 표본을 찾아냈다. 이로써 최종 분석대상이 된 표본은 183건이다.

분석 기사의 주요 프레임과 보도매체 사이의 관계는 카이스퀘어 테스트(Pearson's Chi-Square test)로 측정했다. 뉴스가치에서는 일원변량 분석을 통해 조선일보와 경인일보 두 매체의 보도 중요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1) 조작적 정의와 분석 유목

기사는 형식적인 요인과 내용적인 요인으로 나뉘었다. 코딩 유목은 기사형식, 기사쓰기 방식, 뉴스분류, 취재원, 프레임, 뉴스가치 등이다. 보도방식은 기존 연구(이건호·정완규, 2007)에서 정의한 측정항목 분류 중 일부를 이용했다. 뉴스가치는 문헌분석(Bennett, 1995; Semetko, et al., 2000)을 활용했다.

(1) 기사형식

기사형식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지면상 특성이나 동일 지면에서도 정부 발표, 사건, 인터뷰 등 기사 내용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형식별로 기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거나 객관적 사실에만 근거하기도 한다. 스트레이트, 해설, 복합(스트레이트+해설) 등으로 나뉘었다.

(2) 기사쓰기 방식

기사작성의 접근법에 따른 기사골격을 의미한다. 골격은 취재 과정에서 수집된 중요 정보를 어느 순서로 배치할지의 선택이다. 이를 중심으로 전체 개요를 연결하면 기사 뼈대가 만들어진다. 역삼각형, 변형 역삼각형과 소설적 형태 글쓰기 내러티브, 혼합/기타로 구분된다.

(3) 뉴스분류

기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취재방법 구분이다.

- ① 경성(hard news)-취재의 틀이 정형화되어 있다. 사건, 사고의 스트레이트 뉴스.
- ② 연성(soft news)-자유로운 취재 접근 및 보도. 내러티브 방식과 주로 연계된다.

(4) 취재원

취재원은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접촉한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실명 취재원, 단순 익명 취재원, 소속 익명 취재원, 단체 취재원, 공적 자료, 사적 자료.

(5) 프레임 분류

내용적 프레임은 분석 단위인 각 기사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주요 의미와 가장 부합되는 하나의 단일 프레임을 측정하였다.

- ① 지역경제 활성화-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주변 지역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한다.
- ② 지역낙후성 극복-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의 근본 원인이 인천지역 낙후성에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개발의 원인 점검으로 구도심 이미지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③ 수도권 균형발전-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서울, 경기도 등지와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 ④ 정책적 개발유도-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긍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루고 있다.
- ⑤ 부동산 투기조장-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개발로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그렸다.
- ⑥ 근본적 이윤보장-개인과 민간 기업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순수 개발사업이 아닌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 ⑦ 난개발 심각-경제자유구역이 불필요한 개발을 유도하고 관계 공무원, 기업까지도 이런 잘못된 사안들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
- ⑧ 규제정책 필요-경제자유구역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추진 의지다. 위의 정책적 개발유도 프레임과 상반된다.

(6) 기사의 논조

사회현상은 기자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신문사 내 게이트키퍼 단계에서 보도 경향이 정해진다. 긍정적 사실에 대해 부각시킴으로 한층 강조하거나 이를 반대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다. 이외 긍정과 부정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힘들면 중립 또는 모름으로 구분된다.

- ① 긍정-해당 뉴스의 찬성, 당부, 기대감 등이 전체적 기사 흐름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인천타워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등으로 볼 수 있다.
- ② 부정-간접적 비난, 공격적 태도, 불만 등 반대 입장이 강력하게 표출된다. 일례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7) 뉴스가치 유목

심재철과 프레딘(Shim & Fredin, 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 중 경제적 중요성, 문화적 유사성, 정치적 영향성, 선정주의, 인간적 흥미성, 규범적 일탈성, 갈등성 정도를 5점(1-매우 낮다, 2-낮다, 3-보통, 4-높다, 5-매우 높다) 척도로 이용했다.

- ① 경제적 중요성(Economic Importance)-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는 뉴스 가치가 높다(Graber, 1993). 이슈가 지역이나 국가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중요도를 전달하는 정도로 측정했다. “정부가 차별화된 제도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 첨단 인프라 구축, 생활환경 개선 등을 돕고 있다.”는 높은 평가의 대상이다.
- ② 문화적 유사성(Cultural Similarity)-근접성(proximity)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말한다. 해당 사안이 수용자의 관심에 더 근접할수록 중요한 뉴스로 간주된다. 최근 부동산 관련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송도신도시도 최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문의가 늘면서 프리미엄의 호가가 치솟았지만 거래는 없다.” “인천지역의 땅값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 그 예다.
- ③ 정치적 영향성(Political Significance)-정치인, 고위 공무원을 포함해 정부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수록 높게 평가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식경제부를 최상위 관할기관으로 두고 법률

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정치분야와 어떤 형식으로든 연관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를~” 등에 5점을 주었다.

- ④ 선정주의(Sensationalism)-인심 공격성 언어, 선동적 보도 등 자극적이며 원색적인 문구로 주위를 끈 것이다. 사람들은 진정한 경제적 이슈보다 선정적인 이슈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선정주의는 감상적이며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정부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지만 독자의 시선을 끌기 충분하다.
- ⑤ 인간적 흥미성(Human Interest)-뉴스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감정이입을 유도했는지 측정했다. 독자가 기사에 읽고 싶은 흥미를 느꼈다면 인간적 흥미성이 높다고 봤다. 경성뉴스 보다 연성뉴스가 이에 해당한다. 기사가 개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꾸며졌으면 인간적 흥미성이 높게 평가됐고 사회 구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건조하게 쓰였다면 낮게 평가했다.
- ⑥ 규범적 이탈성(Normative Deviance)-규범은 사전적 의미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구속되고 준거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뜻하므로 이에 반하는 범주들이 여기 속한다. 독자들은 나쁜 뉴스에 집중하고 편집국도 나쁜 뉴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처제 등 주변 인물들의 부동산 매입 의혹과 아들 인사청탁 의혹을 받아 온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를~” 그 사례다.
- ⑦ 갈등성(Conflict)-두 개인과 집단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목표로 대립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과 반대 입장의 집단 간 갈등관계가 얼마나 밀도 있게 다뤄졌는지를 의미한다. 일례로 “인천연대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인천 청라지구 조성원가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포함된다.

2) 코더 간 신뢰도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코더 간 신뢰도는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신뢰도 확인을 위해 연구자와 또 다른 한 명의 코더(언론대학원 석사과정)가 코딩을 실시했다. 우선 연구자는 분석틀(coding scheme) 유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다른 코더가 질문을 하면 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의견 조율을 거쳤다. 연구자와 코더는 전체 분석 자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18건의 기사 중 앞의 체계적 표집 방식으로 1과 10 사이의 숫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조선일보 7, 경인일보 1을 출발점으로 골랐다. 표집 사이의 간격은 10번으로 정하여 대상 표본을 선정했다. 단, 경인일보는 임의적으로 코딩 일련번호 1을 뺀 11번부터 시작했다. 신뢰도 측정은 홀스티(Holsti) 신뢰도 계수 공식을 사용했다. 분석 유목별로 코딩 신뢰도는 최저 89%, 최대 100%로 높은 수준을 보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CR)는 기사형식 .89, 기사쓰기 방식 .94, 뉴스분류 .89, 기사논조 .89, 내용적 프레임 .89, 형식적 프레임 1.0 등이다.

뉴스가치의 경우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중요성 .804, 문화적 유사성 .605, 정치적 영향성 .714, 선정주의 .712, 인간적 흥미성 .892, 규범적 이탈성 .692, 갈등성 .705로 각 항목 통계량을 구했다. 단 내용분석 연구에서 측정은 이항 변인이 일반적이지만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5점 척도의 등간적 수준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변인들 간 중간점을 T-test로 확인했을 때 차이가 없다는, 즉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n.s.)’를 얻었다.

4. 결과분석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전통적인 기사는 ‘스트레이트=역삼각형=경성뉴스’의 형태를 보인다는 게 통설이다. 공적 정보 및 자료에 근거한 경성뉴스는 제반 정보를 리드부터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역삼각형 구조를 띤다. 또 역삼각형 구조는 해설 또는 분석보다 스트레이트 뉴스에 많이 사용된다(이건호·정완규, 2007). <표 1>을 보면, 분석 대상의 전체 기사들은 복합 형태가 7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이트는 54건(2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조선일보 복합 33건(42.3%), 스트레이트 27건(34.6%)이 집중 반영된 데 반해 나머지는 칼럼/논단 5건(6.4%), 해설 3건(3.8%), 기획/특집 3건(3.8%), 인터뷰 3건(3.8%), 사설 2건(2.6%), 기타 2건(2.6%)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경인일보 역시 스트레이트 27건(25.7%), 복합 39건(37.1%)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획/특집 12건(11.4%), 칼럼/논단 11건(10.5%)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런 두 형태는 충분히 지면을 사용하고 언론사 내부 구성원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표 1> 매체별 기사형식

(숫자는 %)

기사형태	조선일보 (n=78)	경인일보 (n=105)	전체 (n=183)
스트레이트	34.6	25.7	29.5
복합	42.3	37.1	39.3
해설	3.8	7.6	6.0
기획/특집	3.8	11.4	8.2
인터뷰	3.8	1.9	2.7
칼럼/논단	6.4	10.5	8.7
사설	2.6	3.8	3.3
기타	2.6	1.9	2.2
합계	100	100	100

매체별 기사쓰기 방식은 <표 2>와 같다. 전통적인 방식의 역삼각형 구조가 96건(52.5%)으로 전체 기사의 절반을 넘었고 내러티브 20건(10.9%), 혼합 65건(35.5%)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국내 언론에서 혼합구조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들 수 있다. 기사 도입부의 첫 단락이 아닌 전반적 문단에서 주제를 드러내면서 이야기 형식으로 기사를 풀어나가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언론의 전형적인 틀을 국내의 시각으로 접근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매체별로는 조선일보 역삼각형 48건(61.5%), 내러티브 13건(16.7%), 혼합/기타 15건(19.2%)이었다. 경인일보는 역삼각형 48건(45.7%), 혼합/기타 50건(47.6%)이다. 결과적으로 두 매체 간 기사쓰기 방식의 상이함은 역삼각형과 내러티브에서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서 조선일보가 역삼각형을 주로 사용하면서 내러티브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에 경인일보는 역삼각형과 내러티브가 혼합된 복합 방식의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다. 두 신문사는 변형역삼각형의 형태를 적극 자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표 2> 매체별 기사쓰기 방식

(숫자는 %)

보도유형	조선일보 (n=78)	경인일보 (n=105)	전체 (n=183)
역삼각형	61.5	45.7	52.5
변형역삼각형	2.6	0.0	1.1
내러티브	16.7	6.7	10.9
혼합/기타	19.2	47.6	35.5
합계	100	100	100

<표 3>의 매체별 뉴스분류 비중은 연성이 경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경성 41건(52.6%), 연성 36건(46.2%)이었고, 경인일보 경성 45건(42.9%), 연성 59건(56.2%)으로 일부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토론회와 사설에서는 경성, 연성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1건씩의 기타 코딩이 이뤄졌다. 이상을 정리하면,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모두 대체적으로 전통적 보도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해설적 기사형식, 내러티브 기사쓰기 방식, 자유로운 취재 접근인 연성방법이 혼합된 복합/혼합 구조의 빈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표 3> 매체별 뉴스분류

(숫자는 %)

취재방법	조선일보 (n=78)	경인일보 (n=105)	전체 (n=183)
경성	52.6	42.9	47.0
연성	46.2	56.2	51.9
기타	1.3	1.0	1.1
합계	100	100	100

<표 4> 매체별 취재원은 실명 취재원 58건(31.7%)과 단체 취재원 60건(32.8%)에 집중됐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 차원의 행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는 기구인 국회, 지방의회 의원들이 실명 정보원으로 상당수 활용됐기 때문이다. 개발 및 부동산 소재 또한 전문분야의 특성을 지녀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 협회 등 단체가 주로 취재 대상으로 분포했다. 조선일보는 단체 취재원 26건(33.3%), 실명 취재원 19건(24.4%), 공적 자료 15건(19.2%), 소속 익명 취재원 13건(16.7%) 등이 대부분이다. 경인일보는 실명 취재원 39건(37.1%), 단체 취재원 34건(32.4%) 등이 다수를 차지했고 소속 익명·불특정 다수 취재원 및 공적 자료는 각각 9건(8.6%)이 사용됐다. 여기서 중앙지의 단체 취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비교해 지역일간지는 실제 정보원과의 빈번한 접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언론사가 위치한 지리적 근접성의 다름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에 본사를 둔 조선일보가 지역취재에 적은 인원으로 접근하다 보니 다수의 정보 제공자를 접할 수 없고 인천본사 체계로 운영 중인 경인일보는 취재, 편집의 주요 신문작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 정보원 접근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표 4> 매체별 취재원의 특성

(숫자는 %)

취재원	조선일보 (n=78)	경인일보 (n=105)	전체 (n=183)
실명 취재원	24.4	37.1	31.7
단순 익명 취재원	1.3	1.0	1.1
소속 익명 취재원	16.7	8.6	12.0
단체 취재원	33.3	32.4	32.8
불특정 다수 취재원	2.6	8.6	6.0
공적 자료	19.2	8.6	13.1
사적 자료	1.3	1.0	1.1
기타	1.3	2.9	2.2
합계	100	100	100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1) 내용적 프레임

내용적 측면 프레임 비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지역경제 및 사회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프레임’이 전체 38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적 개발유도 프레임’이 20건 집계됐다. 이어 ‘지역낙후성 극복 프레임’과 ‘수도권 균형발전 프레임’ 유목은 각각 4건, 5건으로 매우 낮게 측정됐다. 각각의 응답 결과는 매체별로도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네 가지 프레임에서는 조선일보와 경인일보가 유사한 프레임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 차원의 도움을 줄 것이라는 프레임은 매체에 구분 없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중 경제자유구역 난개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공무원 및 기업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이라는 ‘난개발 심각 프레임’이 전체 프레임 중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즉 연구대상이 된 부정적 성격의 기사들은 대체적으로 도덕성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이 시민들의 부동산 투기 선동을 우려하는 ‘부동산 투기조장 프레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면에 나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억제하도록 하는 ‘규제정책 필요 프레임’이 둘 다 20건이었다. 이밖에 ‘근본적 이윤보장 프레임’은 전체 10% 이하에 머물렀다. 이상 네 가지 부정적인 성격이 담긴 프레임에서도 매체에 따른 비율이 차별화되지 않았다. 매체별로는 조선일보와 경인일보 모두 현실을 부정적인 기사로 재구성한 가장 큰 이유로 각각 인천경제자유구역 난개발의 원인이 관련 공무원과 기업의 잘못에 근거한다는 게 쟁점이다.

특이점은 가장 저조하게 측정된 구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일보가 ‘규제정책 필요 프레임’을 5건으로 비교적 낮게 활용한 데 반해 경인일보는 ‘근본적 이윤보장 프레임’이 단 6건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매체 간 내용적 프레임을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에서 ‘난개발 심각 프레임’ 25.2%, ‘지역경제 활성화 프레임’ 23.9%, ‘정책적 개발유도 프레임’과 ‘부동산 투기조장 프레임’ 그리고 ‘규제정책 필요 프레임’이 각각 12.6%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낙후성 극복

프레임' 2.5%, '수도권 균형 발전 프레임' 3.1%, '근본적 이윤 보장 프레임' 7.5%로 낮게 분포했다. 매체별로는 중앙지인 조선일보가 '지역경제 활성화' '난개발 심각' '정책적 개발유도' '부동산 투기조장' 순이었고, 지역일간지 경인일보의 경우 '난개발 심각'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정책 필요' '부동산 투기조장'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점에서 두 신문은 보도방향의 차이를 일부에서 두고 있다.

<표 5> 내용적 측면 프레임 비교

(숫자는 %)

프레임 구조	조선일보 (n=64)	경인일보 (n=95)	전체 (n=159)
지역경제 활성화	28.1	21.1	23.9
지역낙후성 극복	3.1	2.1	2.5
수도권 균형발전	3.1	3.2	3.1
정책적 개발유도	17.2	9.5	12.6
부동산 투기조장	10.9	13.7	12.6
근본적 이윤보장	9.4	6.4	7.5
난개발 심각	20.3	28.4	25.2
규제정책 필요	7.8	15.8	12.6
합계	100	100	100

(2) 기사 논조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2곳의 매체가 뉴스를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보도했는지 논조를 비교했다(<표 6> 참조). 조선일보는 33건(42.3%)이 긍정적 시각으로, 이보다 약간 감소한 32건(41%)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반대로 경인일보는 부정적 내용으로 61건(58.1%)이 기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34건(32.4%)은 긍정적 성향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의 기사들은 이번 소재를 다룰 때 대체로 긍정·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경인일보는 부정·비관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의 주요 프레임과 보도매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테스트로 측정된 결과 유의확률(p-value)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했으며 유의수준을 0.1로 했을 때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 두 언론사는 서로 대척점에 있었다. 이는 지역현안에 대해 중앙지가 덜 부정·비관적인 시각에서, 해당 지역의 일간지는 더 부정·비관적인 자세로 보도했다는 것을 뜻한다. 부정적인 논조는 신문 독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주위 환경감시 기능은 독자들이 언론에 요구하는 기능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매체별 기사 논조

(숫자는 %)

논조	조선일보 (n=78)	경인일보 (n=105)	전체 (n=183)
긍정(낙관)	42.3	32.4	36.6
부정(비관)	41.0	58.1	50.8
기타	16.7	9.5	12.6
합계	100	100	100

(3) 형식적 프레임

각 신문의 뉴스 보도를 프레임의 형식적 측면에서 살펴봤다. <표 7> 형식적 구성 방식에서 조선일보는 전체 78건 중 66.7%에 해당하는 52건을 일화중심으로 보도했다. 반면 주체중심은 일화중심의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현상 자체의 전달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경인일보는 뉴스를 구성하며 어느 한 방식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비해 주체중심 프레임을 적극 사용하며 이슈와 관련 원인 및 배경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정보 파악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매체로 봤을 때 일화중심 프레임이 104건(56.8%)으로 주체중심보다 약간 높았다. 결과적으로 두 언론사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주체중심 보도 형식에 집중하지 못했다.

<표 7> 형식적 측면 프레임 비교

(숫자는 %)

프레임 구조	조선일보 (n=78)	경인일보 (n=105)	전체 (n=183)
일화중심	66.7	49.5	56.8
주체중심	33.3	50.5	43.2
합계	100	100	100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기사를 얼마나 어떤 분야에 가치를 두고 보도했는지 알아본 결과물이다(<표 8> 참조).

<표 8> 매체별 뉴스가치의 일원변량 분석

(5점 척도: 1-매우 낮다, 5-매우 높다)

뉴스 가치	조선일보 (n=78)	경인일보 (n=105)	전체 (n=183)	유의도
경제적 중요성	3.95	3.84	3.90	n.s.
문화적 유사성	3.28	4.10	3.69	p<.001
정치적 영향성	3.24	3.10	3.17	n.s.
선정주의	1.95	2.34	2.15	p<.05
인간적 흥미성	3.68	3.51	3.60	n.s.
규범적 일탈성	1.76	2.05	1.91	n.s.
갈등성	2.17	3.01	2.59	p<.001

이 측정에서 경제적 중요성(3.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 유사성(3.69), 인간적 흥미성(3.60), 정치적 영향성(3.17)에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이어 갈등성(2.59), 선정주의(2.15)가 뒤를 따랐으며 규범적 일탈성(1.91)은 매우 저조했다. 매체별로 경제적 중요성과 정치적 영향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문화적 유사성 및 갈등성은 현격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즉 통상적으로 뉴스가치가 큰 경제 문제, 세부적으로 개발 뉴스를 다룬 본 연구에서 경제적 중요도는 매체에 상관없이 높은 가치가 부여됐다. 또 문화적 유사성에서는 경인일보가 조선일보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는 갈등성에서 경인일보와 비교했을 때 낮은 가치를 주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경제 분야를 다룬 이번 연구는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중요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 독자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탓에 문화적 유사성 및 인간적으로 흥미를 끄는 경우가 충분했다. 다만, 슈메이커(Shoemaker, 1996)와 그의 동료들이 갈등성과 선정주의를 높이 평가한 전통적인 뉴스가치의 기준은 이번 연구에서는 성립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크게 보도되려면 일탈성이 높아야 한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이와 다르게 한국 신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관습이나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구조적 혹은 계층 간 갈등이 치열한 뉴스에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는 권력과 재원이 분산되어 있지 못하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문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이 사회통합이나 집단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경험도 있다(심재철, 1997/1999).

이 연구에서 평균치 이하로 낮은 가치를 보인 선정성의 경우 슈메이커의 연구 결과와 상반됐다. 이는 미국의 권위지와 국내 신문이라는 분석 대상의 다름이 연관됐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경인일보는 선정적 보도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돋보였다. 신문이나 방송이 수용자(독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체별 빈도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중요성에 ‘뉴스가치가 높다’는 4점이 조선일보 43.6%, 경인일보 42.9%로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치적 영향성은 ‘가치가 매우 높다’의 5점 선택 비율이 조선일보 32.1%, 경인일보 36.2%를 차지했다. 또한 1점인 ‘뉴스가치가 매우 낮다’는 선정주의에서 조선일보 55.1%, 경인일보 36.2%였고 규범적 일탈성에서는 조선일보 64.1%, 경인일보 41.9%로 두 유목은 그 가치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내용 분석한 조선일보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개발 보도를 경인일보와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같은 <표 8>에서 보듯, 7개 항목 가운데 3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조선일보와 경인일보로 측정된 보도매체 한 가지이고, 종속변인은 개별 뉴스가치들이다.

5. 요약과 함의

이 연구는 전국적 이슈이면서 지역적인 이슈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문제를 보도하는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두 매스미디어의 보도방식의 차이점을 내용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또 중앙지와 지역일간지가 관련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며 어떤 상이함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뉴스 프레임과 뉴스가치를 비교 분석했다. 특히 뉴스 프레임을 ‘뉴스기사가 현실의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규정·해석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전국과 수도권을 각각 대표하는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경인일보의 프레임 방식을 살펴보았다. 지역현안을 대상으로 한 보도에서 해당 지역을 주로

발행 및 판매범위로 하는 신문사는 객관적인 위치로 보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현실 규정에 앞서 분석대상 기사는 귀납적인 분류를 실시하여 내용적 프레임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에 덧붙여 특정 이슈를 바라보는 기사 논조를 확인하는 한편 형식적 프레임을 구분함으로써 조선일보와 경인일보가 뉴스 보도에서 주제중심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알아봤다. 저널리즘은 전통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기능으로써 그 뉴스가치를 지녔다. 이러한 뉴스가치는 취재 기자가 특정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크, 편집자 등 언론사 내부 게이트키퍼를 거쳐 지면으로 최종 드러나는 평가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각 신문이 기사선택 시 어떤 기준에 비중을 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도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첫째, 기사형식은 스트레이트와 해설이 혼재된 복합이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스트레이트가 빈번했다. 차별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다만 취재기자들이 단순 스트레이트 작성법을 과감히 줄인 것은 보도자료에 크게 의존하던 과거 관행을 벗어나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심층보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로 엿보인다. 또 기획/특집 기사에 비중을 둔 해당 지역일간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슈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셈이며 많은 지면을 배정할 수 있었다.

둘째, 기사쓰기 방식을 보면 조선일보는 내러티브 형태가 13건에 그친 데 반해 상대적으로 경인일보가 내러티브를 일부 포함한 혼합방식을 50건 사용해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는 역삼각형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으며 두 신문에서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사의 중간 단락이나 첫 문장의 2~3 단락 뒤에서 리드가 따라오는 변형역삼각형은 총 183건 중 2건에 머물러 극히 미미했다. 이 연구에서는 역삼각형 방식이 정보 전달에서 쉽고 빠르다는 장점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형역삼각형의 저조한 건수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 맨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호기심을 감소시키고 독자에 지루함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뉴스분류에서 정형화된 접근의 경성방식과 좀 더 자유로운 취재가 가능한 연성방식 간 작은 차이를 발견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경인일보에 비해 경성기사가 9.7%p 많았고 연성 기사는 10%p가 적었다. 이상의 보도방식을 분석하면, 스트레이트와 역삼각형 그리고 경성뉴스가 과거 공식처럼 사용되던 관행(이건호·정원규, 2007)이 현재 시점에서도 그리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각각은 한 기사에서 전통 방식에 해설, 내러티브, 연성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어 관대해지는 구조상의 특징이 확인됐다.

넷째, 취재원의 특성에 관한 결과에서는 상당수가 실명을 밝히거나 단체 취재원에 집중돼 있었음이 발견됐다. 상대적으로 공격 자료는 10건 중 1건 비율로 낮게 사용됐고 불명확한 정보나 사적 자료의 활용도는 극히 적어 공개적인 취재원이 활발히 거론됐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지역언론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공식적 뉴스원에 활동을 통제당할 수밖에 없다(윤영철·홍성구, 1996; 유정호, 1998)는 것과 관련해 뉴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보원을 들 수 있다. 정보원의 영향력은 이 연구에서 다룬 이슈가 지식경제부 또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대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업무구조 탓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기사논조와 함께 뉴스 프레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첫째, 조선일보는 긍정과 부정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을 나타냈다. 명확한 보도 경향을 외형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인일보가 부정적 시각으로 현상을 규정·해석하고 있었다. 과거 미디어가 권력집단의 업무를 돕는 경비견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Donohue, et al., 1995). 따라서 지역의 현실이면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슈에서 중앙지는 지역일간지에 비해 심층적인 분야까

지 지면을 통해 객관적이며 비판적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전국과 지역을 아우르는 대상에서 중앙지가 더 우호적이고, 지역일간지가 덜 우호적인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밝혀냈다. 국가 권력으로 대변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원이 광고주, 신문 소비자, 정보원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지면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전적으로 지지된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확률이 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나름대로 의미를 확인했다. 둘째, 매체 간 내용적 프레임의 분류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난개발 심각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이와 대립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프레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이슈가 장·단점을 동시에 지닌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매체 간 형식적 프레임 분류에서는 주제중심(43.2%)에 비해 일화중심(56.8%) 프레임의 비중이 약간 높았는데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본질보다는 단순 사실이나 흥미 중심으로 사안을 다뤘다고 볼 수가 있다. 이상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조선일보와 경인일보의 보도방식과 뉴스 프레임 비교

(숫자는 %)

구분	조선일보 (n=78)	경인일보 (n=105)	전체 (n=183)
기사형태			
스트레이트	34.6	25.7	29.5
복합	42.3	37.1	39.3
해설	3.8	7.6	6.0
기획/특집	3.8	11.4	8.2
인터뷰	3.8	1.9	2.7
칼럼/논단	6.4	10.5	8.7
사설	2.6	3.8	3.3
기타	2.6	1.9	2.2
보도유형			
역삼각형	61.5	45.7	52.5
변형역삼각형	2.6	0.0	1.1
내러티브	16.7	6.7	10.9
혼합/기타	19.2	47.6	35.5
취재원			
실명 취재원	24.4	37.1	31.7
단순 익명 취재원	1.3	1.0	1.1
소속 익명 취재원	16.7	8.6	12.0
단체 취재원	33.3	32.4	32.8
불특정 다수 취재원	2.6	8.6	6.0
공적 자료	19.2	8.6	13.1
사적 자료	1.3	1.0	1.1
기타	1.3	2.9	2.2

기사 논조			
긍정(낙관)	42.3	32.4	36.6
부정(비관)	41.0	58.1	50.8
기타	16.7	9.5	12.6
내용적 프레임			
지역경제 활성화	23.1	19	42.1
지역낙후성 극복	2.6	1.9	4.5
수도권 균형발전	2.6	2.9	5.5
정책적 개발유도	14.1	8.6	22.7
부동산 투기조장	8.9	12.4	21.3
근본적 이윤보장	7.7	5.7	13.4
난개발 심각	17.9	25.7	43.6
규제정책 필요	6.4	14.3	20.7
기타	16.6	9.5	12.5
형식적 프레임			
일화중심	66.7	49.5	56.8
주제중심	33.3	50.5	43.2

마지막으로, 기존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중요성이 역설된 뉴스가치를 7개 항목으로 나눠 점검한 결과 경제적 중요성은 두 신문에서 평균 이상의 가치를 보였는데, 그라버(Graber, 1993)가 경제 문제에 일반적으로 뉴스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적 유사성 뉴스가치는 전체 평균(3.0)을 웃돌았으며 지리적으로 당해 지역이었던 경인일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주제로 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방정부가 실제 관리의 대상이며 중앙정부, 즉 지식경제부는 상급 부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행정처의 업무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와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로써 정치 분야에서 기반이 단단한 조선일보는 지역일간지에 비해 정보원 등의 접근성이 우수했을 것이다.

인간적 흥미성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특히 부동산 이슈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중앙지나 지역일간지 모두에서 높았다. 개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흥미성은 매체별로 적은 수치에서만 차이를 드러냈다. 기사 집중도와 직결되는 선정주의는 경인일보가 약간 높게 측정됐다. 그러나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요즘 매스미디어에서의 선정성은 현실을 그릇되게 규정해 독자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범적 일탈성, 갈등성 등의 두 유목은 총 7개 뉴스가치 분류 가운데서 평균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규범적 일탈성은 가장 낮은 평가치를 기록했다. 규범적 일탈성이나 갈등성은 사회집단간의 구조적 갈등이나 분쟁을 이슈화하는 경향을 평가한 내용이다. 심재철과 정원규 그리고 김근수(2003)는 국내 경제뉴스에서 신문이 사회통합이나 집단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내 신문들은 구조적 갈등이나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도를 꺼린다는 뜻이다. 이를

연구자의 부동산 뉴스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유의미하게 반영되었다.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 인구조로 제도적인 사회규범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근거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족한 면도 적지 않다. 첫째 경제뉴스, 특히 개발 및 부동산 소재는 언론학 분야에서의 그간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일반화하기 쉽지 않다. 과거 연구들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분석하거나 보도에 따른 가격변동의 상관성, 미디어 의제설정 효과 등이 일부 있었다. 둘째, 분석 대상의 한계이다. 분석 대상이 된 조선일보와 경인일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정이슈에 가장 근접성이 큰 매체이면서 발행 부수(ABC), 사회적 영향력 같은 측면에서 전국과 해당 지역을 통틀어 가장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신문과 함께 영향력을 지닌 TV매체를 포함시켰을 경우 폭넓은 분야에서 프레이밍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매체는 중앙지와 지역일간지에서 각 1곳만을 선택했고 표본은 183개로 충분하지 않아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매체 표본의 양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경인일보 표본을 줄여, 전수 조사 분석이라는 비교 연구의 취지를 담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후속연구에서 필요성을 몇 가지 제언한다. 연구에서 분석 매체의 다양성 및 기간선정의 확대, 신뢰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코더가 요구된다. 특히 저널리즘 관점에서의 개발 및 부동산 분야는 양질의 연구와 함께 추가연구를 통한 질적 향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겠다.

Ⅰ 참고문헌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6호, 157~205.
- 남효윤 (2006). 언론보도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의 규모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권 1호, 115~146.
- 박란희 (2002). 지역신문의 뉴스가치가 독자의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재철 (1997). 일탈성 뉴스가치 중심으로 본 한국신문의 국제뉴스 보도 『언론과 사회』, 20호, 44~71.
- 심재철 (1999). 『경제보도의 이상과 현실: IMF 체제극복을 위한 논쟁』. 서울: 삼성언론재단.
- 심재철·정완규·김균수 (2003). 한국과 미국 신문의 뉴스가치 비교: 대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3호, 95~124.
- 원만해·채백 (2007).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199~228.
- 유정호 (1998). 지역사회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철·홍성구 (1996).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뉴스 만들기. 『언론과 사회』, 11호, 90~122.
- 이건호·정완규 (2007). 『한·미 신문의 기사 형식과 내용』(조사분석 2007-03). 서울: 한국언론재단.
- 임양준 (2010). 공공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보도에 대한 뉴스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49호, 57~80.
- 장호순 (2001). 작은 언론이 희망이다. 서울: 개마고원.

Bennett, W. L. (1995). *The Politics of Illusion*. New York: Longman.

Dominick, J. (1997). Geographic bias in network TV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27, 94~99.

Donohue, G. A., Tichenor, P. J., & Olien, C. N. (1995). A Guard Dog Perspective on the Role of Media. *Journal*

- of Communication*, 45, 116~119.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s of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Ettema, J. S., & Glasser, T. L. (1987). Public accountability or public relations? Newspaper ombudsmen define their role. *Journalism Quarterly*, 64, 3~12.
- Ettema, J. S., & Glasser, T. L. (1998). *Custodians of conscience: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Public Virtu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lasser, T. L., & Ettema, J. S. (1989).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the moral order.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6, 1~20.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ber, D. (1993).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4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Merill, J. C. (1993). Professional reporting vs. journalistic ethics: A fundamental quandary in journalism. A manuscript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Morton, L. P., & J. Warren. (1992). Proximity: Localization vs. Distance in PR news releases. *Journalism Quarterly*, 69, 102~1028.
- Riffe, D., Lacy, S., & Fico, F. G. (1998). *Analyzing media message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im, J. C., & Fredin, E. (2004). Deviance a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News: Dimensions and Consequences.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3(1), 26~46.
- Shoemaker, P. J. (1996). Hardwired for news: Using biological and cultural evolution to explain the surveillance fun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47, 32~47.
-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 (1991).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s: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 *Journalism Quarterly*, 68, 781~795.
- Shoemaker, P. J., & Eichholz, M. (2000). Good news vs. bad news: News valence as a theoretical construc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Singapore.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Lexington, Ma. Toronto: D. C. Heath and Co.
- Soroka, S. N. (2002). *When does news matter? Publish agenda-setting for unemployment*. New Road, UK: Oxford Pres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s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Valkenburg, P., Semetko, H. A., & De Vree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9.

(투고일자: 2011. 5. 31, 수정일자: 2012. 1. 17, 게재확정일자: 2012. 1. 27)

ABSTRACT

Content-analyzing News Frame o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between the Metropolitan Newspaper and the Local Daily Newspaper

Seung-Hun Kang*

This research points out how the major newspapers and the Local newspaper try to report the issue of development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differently and observe how the press has played a role in a process. It is seen that the type of story-leading has been followed by properly traditional one as usual and reflected the recent trends well in both. The perspectives of ChosunIlbo to look at the regional issue is taken in the situation of a middle clear attitude but KyeonginIlbo is faithful to make the position of the monitor. In other words, a Metropolitan newspaper often deals with the regional issues in a more passive posture, while a Local daily newspaper tries to report the same issue in a more positive and active form. This kind of attitude upon news composition reflects the quality of the news, which is a standard of actual newspaper articles. The ChosunIlbo focuses on the political issues more while, KyeonginIlbo emphasizes on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they trace the economic importance, human interest but less to the structural figures.

Keywords: Incheon Free Economic Zone, Content-analyzing, News Values, News Frames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Inha University